

# 해외수주·주택·플랜트 3박자 척척... '1조 클럽' 눈앞

## 상반기 건설사 성적표

### GS건설

영업이익 6091억... 전년 동기비 320% 증가  
 好실적에도 부실시공 등 논란에 추가 시큰둥

“시장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경쟁력으로 해 볼 만하다.”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반년 후, GS건설은 이를 방증하듯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크게 웃었다. 상반기에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올해 '1조 클럽'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추가 침체, 부실시공 논란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올 상반기 '장사 잘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0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3% 증가했다.

매출도 6조7094억원으로 17.8% 늘어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2분기만 봐도 영업이익 2190억원, 매출 3조5820억원, 당기순이익 3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7%, 19.6%, 1297.6% 늘었다.



GS건설 그랑서울 사옥 전경. /GS건설

실적 상승의 원인은 신규 수주, 주택사업 호조, 플랜트 착공 등으로 분석된다.

GS건설은 올 상반기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8460억원), 구미원평2동 재개발(4090억원), 보령

LNG터미널(1930억원) 등을 수주했다.

플랜트 부분의 상반기 매출은 2조117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6.75% 증가했다. 건축·주택 부문도 전년 대비 14.4% 늘어난 3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 중 유일하게 해외 부문에서도 수주 증대를 보였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GS건설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체결한 해외 수주 금액은 6억9297만 달러(7747억여원·8위)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억7866만 달러·10위)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업계에선 GS건설이 올해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송유림 연구원은 “양호한 2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연간 이익 컨센서스(전망치) 상황 조정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며 “실적 발표 이후 2018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예상했다.

그는 “연간 입주물량 2만4000세대 중 상반기가 6300세대고 하반기에 1만8000세대가 몰려있어 하반기 건축·주택 부문의 마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추가·브랜드 이미지 회복 관건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에도 GS건설의 주가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한 지난달 26일 주가는

전날(4만7500원) 대비 9.47%(4500원) 떨어진 4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후엔 소폭 올라 지난 3일 4만5600원까지 뛰었다가 7일엔 4만4300원에 장을 마쳤다.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GS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6.1%를 나타내 전분기(12.4%)의 절반 밑으로 푹 떨어졌다. 2017년 2분기엔 16.6%, 2018년 1분기엔 15.9%였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실시공 논란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남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7~8일 경북 포항에서 1차 입주자에정자 사전점검에서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및 나사 부식, 소화전의 소방 호스 부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GS건설 측은 입주예정 기간 내 보수공사를 약속했으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서울 본사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며 크게 항의했다.

결국 GS건설은 지난 4~5일 2차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준공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반침하, 건물붕괴 등의 중대 하자일 경우에만 준공 승인이 안 되는데 포항사에서 나타난 건 일반·생활 하자”라며 “점검 기간을 거치며 대다수 입주예정자도 안정됐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의무보수기간 등으로 보수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는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신한알파리츠' 상장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최규준 한국IR협회의 부회장(사진 왼쪽부터), 우영운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정용선 한국리츠협회 회장, 권오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 김규현 국토교통부 국장, 정한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이원선 상장회사협회 전무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흥행 성공' 신한알파리츠 상장 기념식

### “개인 소액 부동산투자 대중화 기대”

신한금융투자는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신한알파리츠' 상장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신한알파리츠'는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판교 알파돔 6-4블록'과 오피스빌딩인 '알파돔시티' 등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달 약 5000억원의 규모 중 1140억원에 대해 일반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역대 공모리츠 사상 최대 금액인 4927억원이 몰려 4.32대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4849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소액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소 청약금액을 5만원(10주)로 낮춘 데에 1000만원 이하 소액투자자가 전체 청약자의 약 37%인 1785명에 달했다.

이로써 신한알파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표방하는 '일반 개인의 건전한 소액 부동산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 최초의 성공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지금까지의 리츠나 부동산펀드는 기관투자자나 거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었으나, 이번 '신한알파리츠'의 성공적인 공모와 상장으로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초대형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문호 기자 kmh@

## NH투자증권 1위 영화제작사 IPO 성공

NH투자증권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현지기업인 MD 픽처스(MD PICTURES TBK)를 상장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장은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IPO 대표주관을 맡았으며, 이는 올해 들어 세번째 기업공개이다. 이로써 NH코린도증권은 주식 중개에 이어 IB사업까지도 활발히 진행하는 종합증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 상장된

MD픽처스는 인도네시아 1위 영화제작사이다. 2017년 기준 10개 영화를 제작해 개봉했으며, 7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NH코린도증권은 정영태 사장이 선임된 2018년부터 IB, 채권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인력 보강 등 영업력을 강화한 현지 IB데스크는 하반기 시작부터 현지기업 상장 등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NH코린도증권은 기관고객 대상 주식중개영업 및 리테일 신용공여 확대를 2017년에는 약 19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했다. /김문호 기자

## 듀얼카메라 부품 삼성에 납품... 성장세 뚜렷

### IPO 기자간담회

#### '카메라모듈 부품주' 액트로

국내의 글로벌 스마트폰기업에 납품  
 주당 공모 희망가 2만~2만4000원

카메라 모듈부품 및 설비 제조회사 액트로가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8일 액트로의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9일부터 수요예약을 거쳐 16, 17일 청약을 실시하고 28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2012년에 설립된 액트로의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의 핵심부품과 제조공정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류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AF(Auto Focusing, 자동초점 기구장치)·OIS(광학식 손떨림보정장치)·IRIS(조리개 역할) Actuator 등이다.

actor 등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910억원, 영업이익은 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0%, 463%씩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역시 매출액 463.5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 301% 고속성장했다. 지난해 1년 매출액의 절반을 1분기만에 달성한 것이다.

액트로 주요제품의 주 매출처는 삼성전기, 최종 고객사는 국내·외의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이다. 듀얼에서 트리플로 카메라 모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재 갤럭시노트8을 시작으로 듀얼카메라가 채택되면서 액트로의 성장세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액트로의 IRIS를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는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보급형으로 확대되고, 중화권 스마트폰 모델에도 적용시키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액트로가 큰 비중을 두고 투자할 부분은 성능검사기 개발이다. 현재 액트로가 사용하는 성능검사기는 자사의 Actuator만 검사 가능하지만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타사의 부품도 폭 넓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다른 카메라모듈 업체로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 대표는 “IRIS는 매출의 30%, 성능검사기는 매출의 20% 수준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0년 매출액 2500억원, 영업이익률 1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2만원~2만4000원으로 총 120만주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된 240억원~288억원의 자금은 베트남에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2공장 신축에 사용된다.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28일 상장예정인 액트로의 대표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한화건설 '서산 동문 꿈에그린' 입주율 15%

(일주일 만에)

충남 서산에 공급된 '서산 동문 꿈에그린'의 입주가 시작됐다.

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서산 동문 꿈에그린'은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 일주일 만에 입주율 15%를 넘어섰다. 입주는 오는 9월 28일까지다.

'서산 동문 꿈에그린'은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471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로 ▲59㎡ 119가구 ▲73㎡ 168가구 ▲84㎡ 184가구 등이다.

서산은 오는 2020년까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10만여명이 넘는 고용인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에 '서산동문 꿈에그린'은 투자성과 환급성을 갖춘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는 서산 도심권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당진, 태안, 대산, 홍성 등 인근 지역 진출입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성연-음암간 신철도도가 개통하면 서산 일반산업단지, 대산산업단지 등으로 접근성도 높아진다. 아울러 서산시청을 비롯해 부춘산체육공원, 음삼산공원 등과 가깝다.

학군도 갖췄다. 서산시 명문학교인 서령중·고교를 비롯해 동문초교, 서동초교, 서산시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이 인접해 있다. 서산 최초 '스쿨버스 기증'을 통한 안전한 자녀 통학 시스템도 도입했다.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전용 면적 84㎡로 구성되며 4베이 설계가 도입됐다. 단지 중앙엔 하늘광장이 있고 어린이집,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편의시설도 갖췄다.

'서산동문 꿈에그린'은 서산시내 권 3.3㎡당 600만원대부터 공급, 중도금 무이자 등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홍보관은 서산 동문 꿈에그린 단지 내 상가에 열렸다. /채신화 기자